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흡7련대 칭호 쟁취운동 열성자 대회가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흡7련대 칭호쟁취운동 열성자 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8월 2일과 3일에 진행된 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제2차 오중흡7련대 칭호쟁취운동 열성자 대회 이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고 군대 중운동에서 이루어진 성과와 경험, 교훈들이 분석총화되었으며 혁명 무력 강화의 최전성기가 펼쳐지는 역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전군에 대중운동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토의되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순간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 태양의 열파 정으로 주체적 군대 중운동의 위대한 혁사와 전통을 응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시며 군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 대회가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기지 높이 인민군대를 당과 혁명보위의 결정체로 만들며 군력 강화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흡7련대 칭호쟁취운동 열성자 대회의 개회를 선언하시였다.

《오늘도 7련대는 우리 앞에 있어라》



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대회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회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군대 중운동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응호고수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 발전시켜 전군을 당과 혁명을 결사보위하는 오늘의 오중흡7련대로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회 참가자들이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모든 인민군 장병들을 당의 참된 선군혁명투사들로 키우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시면서 현시기 오중흡7련대 칭호쟁취운동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중흡

7련대 칭호쟁취운동은 당군건설의 총로선이라고 하시면서 이 운동은 오늘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 운동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항일의 오중흡7련대의 나팔소리가 전군에 힘있게 메아리치게 하여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오중흡7련대 칭호쟁취운동의 혁력을 새롭게 써나가자는 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전군이 항일의 7련대, 전화의 근위부대가 될데 대한 전투적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중흡 7련대 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 것은 정치사상강화, 도덕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중흡 7련대 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싸움준비 완성에 모를 박고 모든 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중흡7련대 칭호쟁취운동과 오중흡7련대 칭호를 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운동을 다같이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오중흡7련대 칭호를 쟁취한 부대들에서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힘을 넣어 이 운동의 성과가 3대 혁명의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번 대회는 오중흡7련대 칭호쟁취운동에서 근본적 전환을 일으켜 전군을 당 제7차 대회 결정관철에 불러일으키는 총진군, 총동원대회로 주체의 진군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모두다 오중흡7련대 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에 한결 같이 떨쳐나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정신을 창조하며 주체 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갈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폐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체 대회 참가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 총매진하여 당과 혁명보위의 새 혁력을 써나가는데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흡7련대 칭호쟁취운동 열성자 대회의 폐회를 선언하시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멋있다고, 공장을 문화성 있게 정말 잘 지었다고 하시면서 앞을 내다보며 통이 크게 건설한 것이 알린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고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그들이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초소, 수산전선의 병기창을 높은 생산성과로 굳건히 지켜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

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종합조종실, 견본실, 그물작업반, 바줄작업반, 폐작업반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의 기술장비수준과 생산실태,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어구생산에 필요한 현대적인 제망기, 권사기, 성형기 등을 그흔히 갖추어놓은 결과 지난 시기에 비해 공장의 기술장비수준과 생산능력이 훨씬 높아졌다고, 기계 바다가 펼쳐졌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어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일데 대한 문제, 원료의 국산화비중을 최대한 높이며 원단위 소비기준을 극력 낮출

데 대한 문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설비들을 운영하고 눈동자와 같이 애호 관리 할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은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흄잡을 데가 없는 만점짜리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어구종합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게 훌륭히 건설할 수 있는 것은 당에서 준 과업은 오직 즉시 접수하고 무조건 집행할 의무밖에 없다는 결사판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기 때문이라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에서 전문수산사업

소들은 물론 섬과 해안연선에 주둔하고 있는 구분대들의 수산부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구들을 마음먹은 대로 꽝꽝 생산하여 충분히 보내줄 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은 나라의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보배공장, 후대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재부, 큰 밀천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규모가 큰 종합적인 어구생산기지를 일떠세운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생산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자기들 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며 현시기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화국이 제안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주범인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호전세력은 마이동 풍이다. 그들은 얼마전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서 《북의 기습침투》에 대비한다는 미명 하에 해상실탄사격훈련을 벌렸고 미국은 유사시 조선반도 투입을 위한 초음속 핵전략폭격기 《B-1B》를 팜도에 배치하며 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지난해 북과 남사이에 극단의 위기를 몰아왔던 8월 사태를 재현하려는 반통일, 반평화 세력의 무분별한 도전은 공화국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축발시키고 있다.

적들의 도발에는 즉시적인

# 8월에 새겨진 불멸의 업적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하려는 것은 공화국의 단호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지난해 8월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발발의 역경을 평화와 안정의 순경으로 만든 공화국의 무혈무전승의 사변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당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서 있은 지뢰폭발을 《북소행》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그를 구실로 반공화국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였고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절정을 이룬 때에는 《북포탄발사》 사건을 고안하고 수십발의 포탄을 란사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갔다.

북남사이의 대결이 교전직전 까지 치달은 첨예한 정세를 예

리하게 통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국가를 방위하고 도전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결정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강구하시였다. 그이의 명령에 따라 인민군대 전선대련합부대들은 모든 군사작전준비를 완료하였고 준전시 상태가 선포된 전선지대에서는 결사항전태세로 들끓었다. 각일각 전쟁위험이 엄습하는 준엄한 역경속에서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쳐 산악 같이 일떠선 진국가적, 전인민적 단결의 위력은 일찌기 류례가 없는 것이었다. 공화국의 초강경대응 앞에서 도발과 북침전쟁연습에 미쳐 날뛰던 호전세력은 공포와 전률에 싸이고 《울지 프리덤 가디언》 전쟁연습은 서리맞은 호박잎 신세가 되었다.

정세의 난항을 헤칠 단호한 결심을 지니시고 무적필승의 작전적 방침들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영군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 그리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지휘하여 군대와 인민이 산악같이 일며 선 일심단결의 힘앞에 적대 세력의 전쟁책동은 맥을 추지 못하고 무력총돌로 치닫던 위험천만한 사태가 평정되게 되었다.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인 대화제의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북남고위급 급집족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고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어 그처럼 팽팽하던 사태는 평정되고 전쟁위기로부터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에로 정세는 급격히 전환되었던 것이다.

8월의 그 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운명적인 시각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가야 한다고, 벼랑 끝까지 닿은 교전직전에서 다시 되찾은 평온은 결코 회담탁우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위적 핵억제력을 종주로 하는 무진막강한 군력과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무적의 천만대오가 있기에 이룩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선군의 총대와 군민의 일심단결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근본담보라고 하시였다.

탁월한 지략과 령도로 조선반도에서 다시 터질뻔한 전쟁위험을 막아내고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신 것은 선군령장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국과 겨

례 앞에 쌓으신 크나큰 업적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 전제이다.

지난해 8월 사태는 북남간의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도 전쟁의 불씨로 되고 그것이 전면전으로 번져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연습을 중지하여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군사적 도발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조국강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환장하여 끝끝내 전쟁의 불길을 터뜨린다면 추후도 용납하지 않고 정의의 성전,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하려는 것이 공화국의 의지이다.

고영식

## 무적의 강군을 가진 긍지

나라와 민족마다 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군대가 있다고 해서 자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다 지켜내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실례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도 군대가 있었지만 미군의 침공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종시되고 힘이 없으면 정의도 부정으로 되는 오늘의 현실은 자기를 지키자면 총대가 강해야 한다는 것을 진리로,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다.

하다면 군대의 강약은 어디에 달려 있는 것인가.

예로부터 명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 강군이 있다.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 국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는 무적강군의 위용을 떨치고 있다. 조선인민군을 전투력이 강한 군대, 그 어

면 대적도 단매에 처부실 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멀고 험한 길을 걷고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 이어가신 그 나날들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합동타격훈련을 지도하신 날도 있고 적아대결의 최전방인 판문점 초소에 까지 나가시여 병사들에게 무비의 용맹을 안겨주신 감격의 순간도 있었다. 봄소 어뢰정에 오르시여 해병들과 함께 사나운 풍랑길을 헤치시며 전술훈련을 지도하신 이야기도 있고 침략세력이 화약내나는 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던 때에 적진의 쿄앞에 까지 나가시여 전군을 조국결사수호와 싸움준비 강화에 산악같이 불러

일으키신 사실도 있다. 첨예하였던 최대 열점지역의 파도사나운 배길과 철령의 새벽안개, 오성산의 험준한 산악은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헤쳐가신 조국수호의 선군장정을 전하고 있다.

인민군부대들과 초소들을 찾으시여서는 군인들에게 멀적의 의지가 담긴 기관총과 자동보총, 쌍안경을 안겨주시고 전군의 훈련장들마다에서 단숨에 훈련열풍을 일으켜 주신 선군령장의 탁월하고 세심한 손길이 있어 조선인민군은 만능의 전법과 백승의 경험을 소유하고 그 어떤 현대 전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주체식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무진막강한 불패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 심정으로 구석구석 살뜰히 보살펴주신 하신다.

병실과 식사실의 온도, 세목장의 물온도, 병사들이 사용하는 모포의 질도 가늠해보시는가 하면 군인들의 급식용 콩된 장과 담배맛까지 보시며 군인들에게 육친적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중대를 찾으실 때면 지휘관들이 막형, 막누이, 혁명전우가 되여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라고, 동무들에게 병사들을 맡긴다고 당부하군 하시며 지휘관들은 군인들에게 더 좋은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밭이 많도록 뛰여야 한다고 이르군 하신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들이 최고사령관이 됐다고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다고, 지휘관들이 군인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잘 돌봐주어 그들이 건강하고 땅만에 넘쳐 군무생활을 해야 자신께서도 시찰의 길을 걷는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였다.

이렇듯 병사들에 대한 사랑과 정으로 언제나 가슴 불태우시는 최고사령관이 시기에 지난해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 군대회를 지도하면서 훈련일 군들은 훈련장에 나가 눈비가 오면 군인들에게 우산이 되여주고 칼벼랑이 막아나서면 어깨를 내대고 딛고 오를 발판이 되여주며 또 여울이 나지면 징검다리가 되여주고 머나먼 행군길에서는 편한 신발창이 되여주며 추워하면 모닥불이 되여주고 더위하면 선들 바람이 되여주며 총탄이 날아들면 방패막이 되여주어야 한다고, 군인들의 앞가슴에 훈련영웅의 훈장과 메달이 빛을 뿐릴 그날에는 군인들이 딛고 올라설 시상대의 받침대가 되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이다.

하기에 오늘 조선인민군의 병사들은 그이를 최고사령관이시기 전에 친부모처럼 믿고 따르며 반드시 것이다.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뵙고 싶어하고 만나면 모두가 그이께 스스럼없이 안겨들며 만세를 부르고 헤여질 때는 사포는 바다물에 까지 뛰여들며 그이를 배웅하는 감동깊은 화폭은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이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쳐있음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조선인민군을 사상과 도덕의 강군,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처부시는 무적의 전투대으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공화국은 기어이 조미대결전을 결산하고 최후 승리의 7.27을 안아올 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취를 남긴 사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혼신한 남조선의 정몽헌 전현대 그룹 회장도 그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가 세상을 떠난지도 어언 10여년 세월이 흘렀지만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에 모든 힘을 다한 그의 애국적 소행은 오늘도 사람들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다.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통일애국의 길에서 그와 인연을 맺으시고 민족단합과 통일 실현에 적극 기여하도록 대해 같은 믿음과 각별한 은혜를 베풀시였다.

그이께서는 선친의 유지대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비롯한 북남협력사업에 심신을 바치는 정몽헌 회장을 여러 차례나 만나주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잘해나가도록 믿음과 은총을 들풀주시였다.

새로 개발한 금강산관광지구도 그와 함께 돌아보시고

《2000. 9. 30

김정일

국제관광특구 금강산에서.》라는 친필도 뜻깊게 남겨주시였다.

그가 뜻밖에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그 비보가 차마 믿어지지 않으시여 애석함을 금치 못해하신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정몽헌 회장이 민족 앞에 남긴 공적을 크게 평가하시여 유가족에게 조전도 보내주시고 그의 통일애국의 땀이 배어 있는 금강산에 추모비도 세우도록 깊은 관심과 은정을 들풀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몽헌 회장과 현대일가에 돌려주신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그뿐이 아니다.

2007년 11월 평양을 방문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그의 딸을 만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주영, 정몽헌 선생들을 뜨겁게 희고하시고 그들이 백두산을 참관하도록 배려하여 주시였다.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또다시 만나시여서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와 백두산관광 문제 등 그들이 청원한 문제들을 다 들어주시였다.

따뜻한 동포애의 정으로 담화를 나누시며 정주영, 정몽헌 선생을 비롯한 현대그룹 선임자들을 회고도 하시고 앞으로 기업활동과 북남 경제협력 사업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시는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는 각별하였다. 현대그룹에 대한 그의 고무와 격려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현대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현대족에 힘을 실어주어 한번 맷은 인연을 이어가는 의리》로 널리 전하였다.

통일의 길에서 정몽헌 회장과 그의 일가에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시는 비보에 접하고 현정은 회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장군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던 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면길을 와주어 감사하다고 하시며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었다.

정몽헌 회장이 사망한지 10년이 되었을 때 원수님께서는 구두чин서를 통하여 정몽헌 선생은 민족화해와 협력의 길을 개척하고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 성업을 위해 큰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의 명복을 기원하며 아울러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정몽헌 선생의 가족과 현대그룹의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하시였다.

현정은 회장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두чин서를 보내주신 정몽헌 선생은 민족화해와 협력의 길을 개척하고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 성업을 위해 큰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의 명복을 기원하면서 그이께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그이께 유가족들과 현대그룹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 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겨레는 통일의 길에서 현대일가와 맷은 인연을 두터이 하시고 구진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다시 뵙웠고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숭고한 믿음과 사랑, 고결한 의리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절감할 수 있었다.

남조선의 한 기업가와 그 일가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터운 사랑과 정은 조국통일운동 사에 력력히 새겨져 빛을 뿐릴 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 자력자강의 생산동음 높이 울린다

곡산공장을 찾아서

차게 내짚게 되었다.

그후 공장을 14차례나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장이 되도록 결음결을 보살펴주신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우리나라 식료가공공업의 모체공장으로 전변되게 되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여사와 함께 주제35(1946)년 3월 공장에 첫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여러차례나 이곳을 찾으시여 공장의 현대화와 증산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고를 다 바치시였다.

## 자강력이 낳은 자랑찬 열매

6월의 그날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곡산공장의 현대화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95% 이상 보장한 것이라고,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들마다에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첨단설비들을 그촌하게 차려놓았는데 하나와 같이 미남자처럼 생겼다고 하시면서 최근년간 식료공업부문이 국산화실현에서 앞장서고 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이전에는 수입에 의존하던

지난 6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한평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고 그 은덕을 길이 전해 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평양곡산공장은 설비, 자재, 원료의 국산화와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구현된 나라의 식료공업의 본보기공장으로 일신되게 되었다.

## 자강력이 낳은 자랑찬 열매

공장을 돌아보느라니 모든 생산요소들에서 그것을 대뜸 느낄 수 있었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 강국건설에 한몫 하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능력있는 과학기술 연구집단과 공장의 해당부문이 설계제작하여 도입한 백합파자콘베아를 비롯한 각종 콘베아들, 크고 육중한 가마들과 탕크, 착유기 등 기계설비들...

이전에는 수입에 의존하던 분석설비들도 자체로 첨단수

준에서 만들었고 종전의 당생산방법이 아니라 강냉이농마를 기질로 하여 만든 효소에 의한 당화물생산공정으로 더욱 완비되었다. 또한 자동화, 흐름선화,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된 강냉이가공과 물엿, 옥당, 파자, 사탕생산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들을 실시간 감시 및 조종할수 있는 정보체계도 세워져있었다.

이곳 종합분석실의 연구자 김명월은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 현대화과정을 통하여 얻게 되는 우리 생산자들의 경험이고 확신이다.』고 궁지에 넘쳐 말하였다.

평양곡산공장을 현대화하도록 가르치심을 주시고 현대화에서 기본은 국산화를 완벽하게 실현하는것이라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의 뚜렷한 목표를 밝혀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사회주의강국의 래일을 앞당겨오시는 그이의 심중에서 제일 많이 울리는 말도 국산화이고 제일 큰 기쁨을 찾으시는 때도 자강력의 훌륭한 열매를 보실 때이다.

100% 국산화된 경비행기가 나왔을 때에는 몸소 비행기에 오르시여 리처드 허버트를 해마다 하고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의 시운전에도 참석하시였으며 또 우리의 원료로, 우리 식의 가공방법으로 뽑은 당이라고 하여 강냉이에서 추출되는 옥당을 주체당이라는 새로운 시대으로 표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어려워도 힘겨워도 기어이 자력으로 강국을 일떠세우려는것, 적대세력들이 제아무리 압력과 재재소동에 매달린다하여도 우리 힘으로 번영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존심이고 드높지 않는 배짱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 아래 그 첫 뿌리가 내리고 가지를 뻗친 자강력이라는 거목을 더욱 왕성하게 자래워 대대손손 따들일 행복의 열매, 번영의 오곡백과를 무르익히시려는것이 그이의 구상이고 결심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평양곡산공장을 돌아보시고 모든것이 마음에 들고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다고, 또 하나님의 소문거리, 자랑거리가 생겼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은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공장,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본보기로 내세울만 한 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적인 공장이라고 하신것이다.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다.

국산화, 현대화가 실현된 평양곡산공장을 통하여 자강력으로 발전하며 강성부총할 공화국의 래일을 방불히 그려볼수 있었다.

본사기자 김철진



여야 했다는것이 그들의 슬픈 고백이였다.

인간의 존엄과 지위를 찾고 사람답게 살아보려던 여성들의 세기적숙망은 공화국에서 비로소 현실로 꽂혀났다.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지배와 복종대신에 사랑과 헌신이, 학대와 멸시가 아니라 존중과 협조가 가정의 새로운 풍미로 뿌리내리여 공화국의 여성

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시대에 여성들의 존엄과 인격은 최상의 경지에서 빛났다. 온 나라가 크나큰 상실의 아픔에 잠겨있던 주체84(1995)년 3월 8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출판보도물에서 여성문제를 크게 취급하지 않았다고 못내 서운해 하시며 일군들을 목석같다고 엄하게 비판도 하시고 남녀평등권법발포기념일에는 꼭 봉창하라고 재삼 당부

을 잊지 않고 외모도, 마음씨도 다 아름다운 인간이 되도록 온갖 조건을 지어주시고 살뜰히 돌보아주신다. 여성들의 건강과 더 좋은 생활조건을 위해 막대한 국가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해주셨으니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는 그 은정을 길이 길이 전해가고있다.

여성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로 사회에서 차별시되고 잡초처럼 짓밟히고있는 남조선은 여성인권의 불모지이다.

을 운운하며 자기가 당선되면 『여성차별도 없어진다.』느니 뛰니 하는 온갖 감언리설을 내뱉었던 박근혜가 집권한 몇 해사이에 여성취업률은 해마다 떨어졌으며 그나마 여성로동자의 80%이상이 동조건이 매우 한심한 시간제일자리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있다. 해고의 첫째가는 대상도 여성들이다. 매해 4 000~5 000명의 여성로동자들이 산전산후휴가기간에 직장에서 쫓겨나 실업자로 되고있다.

많은 여성들이 생산현장과 회사들에서 술시중, 신체통락, 성적모욕 등을 강요당하면서 치욕속에 몸부림치고 있으며 직장들에서 당하는 성폭행사건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여성인권의 불모지에서 여성들은 자살과 범죄의 길로 떠밀리고있다.

사랑도, 육체도 돈으로 팔고 사는 말세의 세상에서 여성들이 놀거리상품으로, 현대판노예로 전락되고있을 때 공화국에서는 여성들을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인간의 존엄과 참다운 삶을 안겨주고있다. 그 품에 운명을 맡기고 힘과 재능을 다 바쳐 조국을 만들어가는 공화국의 여성들.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성존중, 여성인권의 화원인 공화국의 현실이야말로 자본주의가 흥내낼수도 없는 조선의 귀중한것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 ◎ 자본주의가 흥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조선의 귀중한것 (12) ◎

### 녀성들의 삶의 락원

들은 어머니로서, 안해, 누이로서 더없는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여성들을 나라의 꽃이라고 부른다. 이 부름에는 공화국의 여성들만이 누리는 최대의 행복과 공지가 비껴있다.

인류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 지구상 그 어느 나라에 공화국여성들처럼 남자들과 꼭같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었던가.

모친 비바람에 처량하게 꺾이우고 떨어지는 울밀의 봉선화, 이것이 바로 조선여성들의 옛모습이였으니 그들에게서 삶이란 무엇이고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이였던가. 차라리 여자로는 태여나지 말았

공화국처럼 여성영웅, 여성일군, 여성혁신자들이 많은 나라가 또 어디 있으랴.

공화국은 여성들의 위훈을 높이 내세워주고 세상에 길이 빛내여주고있다.

공화국에 만발하는 여성인권의 회원은 위대한 태양이 눈부신 빛발파 따사로움으로 가꾸고 펴워낸 고귀한 결실이다.

인류사상 처음으로 여성해방에 관한 완벽한 사상과 리론을 밝혀주고 혁명파 건설의 전행정에서 그것을 구현하신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그 나날에는 『조국광복회10대 강령』에 원대한 그 뜻을 담으셨고 나라가 해방된 후 여성해방위업을 빛나게 실현하

까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조선여성의 존엄과 영예는 높은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서 빛나고있다. 그이께서는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에서 여성군인들의 가슴마다에 무비의 용맹을 안겨주시고 제4차 전국여머니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으며 여성들속에서 발휘되는 아름다운 소행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성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고상한 품성을 지니고 원숙한 아름다움을 가꿀수 있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이끌어 주신다. 여성들이 젊음과 건강

유럽의 국제심판원들이 독관치던 여자월드컵 경기대회 심판력사에 조선의 국호를 보았듯이 새겨넣은 장한 녀성이 있다. 그가 바로 『여자축구심판원들의 표본』으로 국제축구련맹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공화국의

##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 세계가 인정한 조선의 여자축구국제심판원

리향옥여자축구국제심판원이다.

## 국제축구심판원의 무게

늘씬한 키에 날파람 있는 몸매, 이악한 성미가 엿보이는 도드라진 이미며 예지가 반짝이는 눈... 리향옥국제심판원과 마주섰을 때 기자의 눈에 비껴든 첫 인상은 지성도와 체격의 조화가 기막히게 잘 어울리는 타고난 체육인이라는 느낌이었다. 방금 훈련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라는 그의 몸은 땀으로 화학 젖어있었다.

8월 5일부터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열리는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여자축구국제심판원으로 선정된 그는 며칠후면 현지로 떠날 몸이었다. 국제축구련맹이 인정하는 명망높은 국제심판원인 그가 출발을 앞두고 까지 땀으로 온몸을 적시며 훈련을 해야 할가?... 그런 속생각을 읽은듯 리향옥이 입을 열었다.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것은 선수들만이 아니랍니다. 국제

력을 발휘하도록 이끄는 것이 심판원이다.

세계축구심판력사에는 객관성과 공정성, 높은 실력으로 만사람을 경탄시킨 유능한 심판원이 있었는가 하면 한번의 돌이킬수 없는 실수나 편심행위로 하여 세계를 격분의 도가니로 끓게 하고 사람들에게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심판원들도 기록되어있다. 2010년 월드컵 경기대회 16강전 잉글랜드팀과 도이췰란드팀 간의 경기주심을 섰던 우루파이심판 라리운다, 그는 잉글랜드선수가 차넣기 한 공이 도이췰란드팀 문가틈대에 맞고 문선안쪽으로 떨어졌지만 그것을 가려보지 못하고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계가 비난으로 물끓듯하게 했다.

축구경기에서 심판원의 역할이 이렇듯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축구련맹에서는 국제심판원자격 심사



리향옥(왼쪽에서 두번째)

경기장에서 심판원의 이름은 자기 나라 국호와 함께 불리워집니다. 심판원의 실력이 우수하면 그가 속한 나라의 명예가 빛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니 어찌 하루, 한시라도 훈련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했다. 사람들은 축구경기를 『전쟁』에 비긴다. 그만큼 승부에 대한 의욕이 높기 때문이다. 더우기 나라와 민족의 명예를 걸고 하는 국가대표팀들간의 경기에서 선수들과 관중들의 홍분은 절정에 달한다. 국도로 홍분된 관중들이 리성적으로 행동하도록 조절하고 선수들과 감독들이 최대능

기준을 매우 엄격히 정하고 있다.

어느해인가 있는 국제축구심판원자격시험에서 40m달리기, 150m달리기, 20m왕복달리기를 비롯하여 전문선수들과 대등한 지표측검을 진행하였는데 파종한 육체적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기권하거나 쓰러진 심판원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 모든 지표에 통과되어 2007년 1월 국제심판원자격을 받은 리향옥이였건만 여전히 훈련으로 낚파 밤을 보내고 있는 그를 보니 더욱 존경이 갔다.

▶ 국제심판원으로 처음 심판을 맡은 축구경기

『마식령스키장에서 운동에 휘둘러지는 눈보라를 맞으며 스키주로를 내리꽂힐 때의 폐감이 아직도 나의 온몸을 휘감고 있다.』

『바다속에 들어가 물방울을 내보내며 숨을 내쉬는 물고기와 함께 물방울도 함께 뭉겨보았는데 수압이 나를 내리누르는 듯 한감에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다.』

『포사격을 할 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반충침이 느껴지니 내가 포를 쏘는듯 한감이 느껴졌다.』

이것은 금방 과학기술전당 률동영화관에

에 대한 인상이 깊으리라고 본다.

『2007년 3월 아시아축구련맹의 주관하에 진행된 어느 한 여자축구경기대회였습니다. (웃음) 그날 나는 경기 시작 8분만에 첫 선언으로 빨간띠지 퇴장처벌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경기를 지켜보던 축구전문가들이 깜짝 놀라던 광경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날 경기가 시작되며 한 선수가 상대팀선수의 등뒤에서 미끄러지며 위험한 동작을 하자 리향옥은 경기를 중지하고 퇴장을 선언했다. 그러자 경기장분위기는 삽시에 얼어붙었다. 국제경기에 처음 나선 심판이 첫 선언으로 빨간띠지를 꺼내든 폐가 없었던 것이다.

축구경기에서 심판활동은 예술과도 같다. 반칙행위의 위험성을 끓어 평가하고 경기흐름에 좋은 영향을 주면서도 관중들이 인정하는 정확한 선언을 내리는데 심판원의 재능이 있는 것이다.

어쨌든 첫 국제경기심판을 통해 리향옥은 대번에 축구전문가들의 시야에 들었다. 그들이 높이 평가한 것은 담력과 배짱이였다. 첫 국제경기심판에서 반칙행위에 대한 첫 선언으로 빨간띠지를 내밀수 있는 배짱과 당당한 자세에 감탄할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심판원의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 이였다.

그후 리향옥은 국제경기심판을 설 때마다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 애썼다.

그 과정에 몇해후에는 아시아축구련맹 여자축구최상급심판원대회에 들어서게 되었다.

『어느해인가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 최종순위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경기심판이 제기되자 다른 심판원들은 선뜻 나서기를 주저했습 니다. 그러자 아시아축구련맹에서는 그 경기심판을 나에게 권고했습니다. 나는 주저없이 응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승자도 패자도 다같이 나에게 찾아와 경기가 높은 수준에서 만족하게 진행되었다며 약수를 청했습니다. 심판원들에게 있어서 이때가 제일 기쁜 때입니다.』

2012년 17살미만 여자

월드컵경기대회때에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한 경기가 끝난 후 두 팀 선수들과 감독들이 그에게 다가와 경기운영이 잘 된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그날 나는 경기 시작 8분만에 첫 선언으로 빨간띠지 퇴장처벌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경기를 지켜보던 축구전문가들이 깜짝 놀라던 광경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선수들이

최대로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경기결과에 대한 사소한 의문도 남기지 않게

하는 우수한 심판원에게는 설사 패한 팀의 선수들과 감독, 관중들도 머리숙여 평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자기를 두고 말전이 빠르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의 축구선수 생활에 뿌리를 두고있다고, 한때 국가종합팀에 망라되어 경기조직자로서 넓은 경기장을 한눈에 담고 경기중심지역을 항상 놓치지 않는 시야를 갖춘 것이 그후 심판활동에서 중요한 밀천으로 되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나마

2003년 제14차 아시아

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1위

... 그나마

얼마전 남조선의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결과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조선의 통일, 외교, 안보전문가들의 97.8%가 통일이 필요하며 민족의 리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또한 어떤 형태의 통일을 바라는가는 물음에 응답자의 균 절반이 《1국가 2체제 평화공존》이라고 대답하였다. 《체제통일》에 대한 응답비율은 그보다 훨씬 적은 30%에 그쳤다.

이것은 남조선의 전문가, 인민들 속에서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 두개의 정부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련방제 방식의 통일에 대한 공감과 지지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의 지속으로 조선반도에는 두개의 제도, 두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체제통일》, 《흡수통일》을 추구한다면 언제 가도 통일이 이루어질수 없고 오히려 대결과 긴장만 격화되게 되고 나중에 전쟁으로 민족이 참혹한 재난을 입을수 있다.

북과 남이 서로의 리익에 맞게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룰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는 련방제방식의 통일밖에 없다.

하기에 공화국은 이미 오래전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때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

을 내놓았었다. 2000년 6월에 진행된 협력적인 평양상봉에서 채택된 6.15공동선언에도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나갈데 대한 조항이 언급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대결 《정권》들은 북남수뇌상봉에서 합의되고 온 겨레가 지지 찬동하는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동족대결, 체제대결책동에 매달려왔다. 그것은 현 박근혜 《정권》 하에서 더욱 우습하게 벌어지고 있다. 북의 《변화》와 《핵포기》를 노리고 벌리는 형형색색의 반공화국모략소동과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련일 벌여놓고있는 북침핵전쟁연습들은 현 남조선당국의 체제대결, 《흡수통일》 야망을 그대로 실증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북남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불발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현실은 민족이 살길은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단합이며 《흡수통일》이 아니라 련방제방식의 통일이라는 것을 확신성있게 증명해주고 있다.

남조선의 통일, 외교, 안보전문가들이 동족사이의 무의미한 대결과 재난적인 전쟁만을 불러오는 당국의 《체제통일》 기도를 배격하고 민족의 의사와 요구, 나라의 현실적 조건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지지해나서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그것은 련방제에로 가는 막을수 없는 대세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 민족자주의 가치, 민족대단결의 가치높이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자!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열망이 더 더욱 강렬해지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는 오늘 더는 외면할수 없는 민족자적요청과 온 겨레의 뜨거운 통일념원을 반영하여 조국해방 일흔한돌을 계기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선회의 북측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남조선과 해외의 명망있는 인사들에게 공개편지들을 발송하였다.

공개편지를 받은 남조선과 해외의 인사들은 최악의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현정세를 완화하고 북

해외측 준비위원회들이 나라별, 지역별로 련이어 조직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남조선당국자들만이 공화국의 제안을 《진정성없는 통일전선공세》라고 거부하면서 오히려 《북위협》을 내걸고 《싸드》 배치 결정으로 대답해나섰다.

그런가하면 있지도 않

록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배치되는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모략소동과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소동은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북남관계를 사상최악의 대결상태로 만들어버린 주범이 바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임을 말해주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년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구실밀에 미국과 함께 공화국을 반대하는 《울지 프리덤 가디

동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당국을 비롯한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

으로 련선회의 개최는 불가능해졌지만 북과 남, 해외의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사되어야 한다는것이 바로 공화국의 의지이고 온 민족이 바라보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에 역행하여 계속 동족대결, 체제대결에 매달린다면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할것이다.

김연희

## 감출수 없는 도발자의 정체

는 《북사이버테로》요, 《GPS전파교란》이요 뭐요 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실제훈련의 확대, 강화에 기본을 두고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남조선 전지역에서 《울지》연습을 벌려놓을것이라고 하고있다. 이 연습에는 시, 군, 구의 행정기관들과 공공기관 등 4 000여개 기관들과 48만여명이 투입되며 특히 지난 시기 도상훈련으로만 진행되던 《GPS전파교란》 대비훈련에 처음으로 민간나갈수 있는 출로를 허심탄회하게 둘의할수 있는 대로 한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군부호전 광들은

언》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겠다고 공언한것은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선전포고로서 조국해방 일흔한돌을 맞으며 끊어오르는 온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하시켜 핵전쟁발발에로 몰아가려는 극히 위험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공화국이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때 대비훈련에 처음으로 민간나갈수 있는 출로를 허심탄회하게 둘의할수 있는 대로 한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군부호전 광들은

### 서론

## 지금처럼 놀라가는 ...

지금 남조선에서 통일부가 노는 꼴이 가관이다.

명색이 통일부인데 하는 말, 노는 행동거지는 하나같이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행위니 말이다.

통일부것들은 매일같이 기자간담회, 회견, 설명회 같은것을 벌려놓고 《북의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은 대화는 무의미하다.》느니, 《지금은 <대북제재> 만이 북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느니, 《개성공단폐쇄는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느니 하는 궤변을 구구히 늘어놓으면서 남조선집권자와 청와대 것들의 악담을 앵무새처럼 받아와우고있다.

한편으로는 이미 거덜이 난 《신뢰프로세스》라는것을 내들고 《남북관계의 정상적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서 앞으로도 유효》하다느니,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것이 <정부>의 기본목표》라느니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도 늘어놓고있다.

특히 통일부 장관 홍용표는 통

일문제에는 담을 쌓고 외교부 장관인지, 국방부 장관인지 분간할 수 없게 입만 열면 제재를 앞장서 부르짖어 겨레의 손가락질을 받고있다.

남조선의 통일부가 이처럼 북남관계개선이 아니라 파국을 불러오는 제재소동에 앞장서 날치고있는것으로 하여 남조선 각계에서도 《밥값도 못하는 통일부》, 《아무런 실권도 없고 구

실도 못하는 통일부는 존재의미가 없다.》, 《<대북제재부>, <대북압박부>로 바꾸어야 한다.》는 비난이 련일 터져나오고있다.

옳은 말이다. 남조선의 통일부는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맡아 수행한다는 기관이다. 지금처럼 북남관계가 한치앞도 대다볼수 없게 질은 어둠에 잠겨있고 자칫하면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엄중한 때에 그래도 통일부라면 자중하고 심사숙고하여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게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옳을것이다.

그러나 불는 불에 키질하는식으로 북남대결을 더욱 부채질하니

이제 어디 통일부인가. 세간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오늘날 조선반도정세가 최악의 위기에 처하게 된것은 철두철미 수십년전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공화국을 엄중히 핵위협해온 미국과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을 위협하고 압살하기 위한 범죄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 박근혜 《정권》에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백을 전도하며 권력의 시녀, 동족대결의 하수인으로 나선 통일부야말로 갈데없는 청와대의 《핫바지》이고 동족대결부라고 해야 할것이다.

통일의 동반자가 되여 함께 손잡고 나가자는 동족에 대해 적의를 드러내며 불순한 제재소동에 여념이 없는 남조선의 통일부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이고 오히려 겨레에게 해만 끼치는 우환거리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재값은 제자신이 받는다고 했다.

남조선의 통일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앉을 자리, 설자리 골라 치신해야 할것이다.

김명성



# 재난의 화근은 하루빨리 들어내야

최근 미국이 남조선과 조선반도주변에 첨단핵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폭로된 것처럼 열마전 미국은 일본 오끼나와의 가데나공군기지에 있던 《페트리오트-3》 요격미사일 1개 포대를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미군기지에 전개하였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지난 6월과 7월 중순 부산항에 끌어들였던 핵동력 잠수함 《미씨씨피》 호와 초대형 핵 잠수함 《오하이오》 호를 조선반도주변 해역에 항시적으로 배치하기로 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 강점 미군에 요격고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페트리오트-3》 요격미사일의 2배 되는 개량형 《페트리오트-3 MSE》를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속에 미태평양공군사령부는 8월초 미국본토에 있던 초음속폭격기 《B-1B》 편대를 300여명의 운영성원들과 함께 팜도로 이동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1B》는 이라크와 수리아에서 《이슬람교국가(IS)》에 대한 폭격에 동원되었다가 올해 1월 미본토로 복귀한 것으로서 그것이 팜도에 배치되는 것은 2006년 4월

얼마전 남조선의 국방부가 성주참외를 사들이는 놀음을 벌렸다고 한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장관과 국방부 차관이 나서서 성주참외를 사들였는가 하면 국군기무사령부, 공군본부 등 국방부 관련 기관들도 냉정 달아 성주참외를 구입하는 풍경을 연출하였다.

《싸드》 배치때문에 유명한 성주참외가 《싸드 참외》로 변해 참외농사도 망치게 되었다는 성주군내인민들의 분노와 항거를 누각혀보려고 자기들도 이렇게 참외를 사가니 제발 피해하고 소동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런 풍경을 연출하였다.

이후 10여년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팜도에 배치된 《B-52》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폭격기들이 제집 드나들듯이 시도 때도 없이 조선반도상공에 날아들어 북침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는 때에 속도나 무장장비에서 《B-52》 전략폭격기를 훨씬 풍가하는 《B-1B》 초음속폭격기가 팜도에 배치되는 것은 그저 스쳐지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북침핵전쟁 위험의 도수가 이미 위험성을 넘어섰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날로 로끌화되고 우심해지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공화국에 대한 제재압살책동과 그에 국구 추종하는 남조선역적들의 대결광기로 하여 오늘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감행되는 남조선과 그 주변에 대한 미국의 첨단핵전쟁비소동이 그 렇지 않아도 첨예한 조선반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남조선

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제 폐를 노린 미국의 핵전쟁전초기지로, 극동최대의 핵전쟁발원지로 전락되었다.

이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 최대피해자는 남조선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 민족전체가 돌이킬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70여년이 넘도록 민족분열의 고통과 불행만을 강요해온 미국은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까지 들씌우려 하고 있다.

더이상 이러한 비극과 고통, 핵참화까지 머리우에 있고 살고 있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이다.

미국의 발광적인 핵전쟁비중강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해서는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과 대아시아지배전략수행을 위한 선견부대이며 돌격대이다.

온 남조선땅을 미군기지화한 미국은 지금까지 《순환배치》니 뛰니 하는 이러한 명목의 구실을 붙여 미군기지들에

수많은 첨단핵전쟁장비들을 체계적으로 반입하였으며 탄저균, 폐스트균, 고엽제와 같은 친인공노할 세균무기와 화학무기까지 끌어들여 비축해놓고 있다.

남조선전역에 방대한 전쟁살인장비들을 쌓아놓은 미국이 언제, 어느 시각에 북침전쟁의 불길을 터뜨리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말로 핵전쟁화약고에 놓인 시한탄으로서 즉시 제거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남조선강점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한다.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공화국은 오늘 미국의 그 어떤 형식의 전쟁에도 상대해 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남조선강점 미군은 공화국군대의 무자비하고 섬멸적인 1차타격대상으로 될 것이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뚜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을 과 함께 전쟁살인장비들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한다.

본사기자 김응철

얼마전 《새누리당》 대변인이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 말이 기관이다. 그는 《싸드》의 남조선배치가 동북아시아평화에 끼치는 후파에 대해 지적한 어느 한 교수와 로무현 《정권》 시절의 청와대 비서관을 넘두에 두고 《안보문제를 외국에 까지 확산시켜 분란을 부추기려는 행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느니 뭐니 하며 소란을 피워댔다. 그러면서 《사대주의적발상의 매국행위》라는 득실까지 펴부었다.

《사대주의적발상의 매국행위》?

참으로 낫가죽 두꺼운 《훈시》가 아닐 수 없다.

《싸드》 배치는 남조선 인민들이 아니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동북아시아지배를 위한 미국의 전략의 산물이다. 그리고 《싸드》 배치 결정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첨예화되고 남조선이 대국들의 싸움판의 한복판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온 남녘겨레가 미

국의 요구를 덤석 받아 물어 남조선인민들을 재난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당국의 친미굴종행위에 치솟는 격분을 터뜨리고 있다.

사대매국행위를 따진다면 그것으로 만인의 규탄을 받고 처벌받아야 할 당사자는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다름 아닌 제 민족을 해치기 위한 《싸드》를 외세에 굽종하여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조선에 배치하기로 한 그 결정이 용납 못할 특등사대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온 남녘땅을 통째로 미국의 군사기지로 섬겨바치고 주겠다는 전시작전통제권도 넘겨받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며 미투어놓은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 쓸개빠진 무리들이 바로 현 남조선집권세력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사대주의적발상의 매국행위》는 다름 아닌 남조선집권세력이 하고 있다.

본사기자 류현철



단평

## 몇 푼의 돈 따위로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권, 운명과 직접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싸드》가 배치되면 레이다의 전자기파에 의해 주민들의 건강이 피해를 보고 참외농사를 아예 망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나라들을 겨눈 《싸드》 때문에 성주군이 그 나라들의 첫 타격의 피해지역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다고 사태가 달라지겠는가. 성주군내주민들에게 있어서 《싸드》 배치문제는 참외농사가 잘되겠는가 안되겠는가 하는 정도의

몇 푼어치의 돈으로 벌리

는 참외사

기 놀 음은

자신들의

운명이 걸

린 《싸

드》 배치를 절대로 허용

할 수 없다고 분노를 터뜨

리는 성주군민들뿐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

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행위이다.

성주의 무서운 분노를

가라앉히는 길은 오직 하

나 《싸드》 배치를 철회

하는 것뿐이라는 것은 너

도 명백한 사실이다.

## 수난당하는 참외

국의 압력에 굽복하여 《싸드》를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당국의 역적행위에 따른다.

《싸드》 때문에 시들어 말라죽거나 항거하다 죽으나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자기들의 인생인 참외를 짓이겨버리는 성주군농민들의 처참한 심정이다.

《싸드》 배치는 곧 자신들의 죽음이기에 항거의 불길을 지핀 성주군농민들이다.

비단 그들만이 아니다. 성주참외가 《싸드참외》로 불리우고 남조선이 주변국들의 충돌의 한복판에 될 책임을 우려하는 남녀의 모든 각계층이 《싸드》 배치 결사반대를 웨치며 투쟁의 거리에 나서고 있다.

이제는 살 땅도, 생존의 터전도 무너졌다. 미

결정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조선반도 주변 나라들을 견제하고 저들의 아시아중시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기어코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려 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북의 핵위협, 미싸일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고 떠드는 것은 범죄적인 《싸드》 배치를 합리화해보려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유사시 미군기지가 있는 남조선으로 불소나기가 되어 날아들게 될 수 천수만의 장거리방사포란과 각종 탄도미사일들을 《싸드》로 도저히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은 초보적인 군사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종심이 깊지 않고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조선반도에서 《싸드》는 무용지물일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때문에 남조선은 막대한 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적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당하게 된다.

《싸드》의 레이다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에 의하여 주변지역에서 인체 및 생물학적 환경피해도 막심하고 더우기는 남조선이 주변나라들의 첫째가는 타격대상이 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주변나라들과의 관계와 《대북공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에 훨씬 더 적대적이고 위험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을 위한 《싸드》 배치결정으로 남조선민심의 저주를 받고 온 겨레의 더욱 큰 규탄반대를 받게 되었을뿐 아니라 주변나라들의 불신을 사고 관계악화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비참한 처지에 빠진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다. 사람들은 이

집권한 후 주변나라들과의 관계에 상당한 공을 들이였다. 집권자 자신이 사방 치마바람을 일으키며 들락날락하고 《초청외교》, 《방문외교》니 하며 그 무슨 《균형외교》와 《밀월》 관계에 대해 제나름의 《치적》으로 요란히 떠들어왔다.

그렇게 품을 들인 것이 《싸드》 배치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래성 무너지듯 할뿐 아니라 오히려 대외적고립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빼히 알면서도 미국의 말 한마디에 《싸드》 배치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남조선집권자이다. 이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쓰디쓴 대가를 초래하는 것인가는 벌써부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싸드》 배치의 당사자인 미국의 전문가들까지도 최근 《싸드》는 남조선 《방어》에 백해무익하며 다른 아시아국가인 조선반도 주변나라들을 감시하기 위해 남조선에 배치하는 것으로서 남조선과 주변나라들과의 관계와 《대북공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에 훨씬 더 적대적이고 위험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것이 빈말이 아니고 역시 미국의 파괴, 주구는 어데 갈데 없다는 것이 이번 《싸드》 배치결정으로 국제사회에 다시금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주변나라의 한 언론도 《한국》이 《싸드》 배치에 동의한 것은 미국의 앞잡이를 주도적으로 자처하는 것이라며 신랄히 비꼬았다.

《싸드》 배치로 하여 남조선이 미국에 더욱 종속되어 되고 미국을 위한 회생물이 되게 될 것은 너무 뻔한 사실이다. 본사기자 서희



본사기자 강류성

# 범죄자에게 머리 숙인 매국노

얼마전 일본에서 방위상으로 내정된 치마두른 군국주의 팽신자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소녀상은 20만 명의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행해 성노예로 삼았다는 잘못된 인식의 상징』이라느니,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일본에 매우 중요하다.』느니 뛰니 하는 망발을 쳐댔다.

이것은 과거 일본군의 반인륜적인 성노예 범죄 행위로 꽂나이 청춘을 짓밟힌 20만의 조선녀성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보복이 아닐수 없다.

정치인으로서 수준은 둘째치고라도 너성으로서 수치심도 느낄 줄 모르고 내뱉은 이러한 망발은 일본정계에 뿌리박은 군국주의 팽기가 어느 정도인가 짐작할수 있게 한다.

족제비도 낫을 불릴 일본의 파렴치성을 둔장질

해준 장본인은 바로 현 남조선집권자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남조선 보수당국은 겨레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일본과 성노예 문제와 관련한 굴욕적인 합의를 하고 그 선상에서 지난 7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지원원』을 위한 『화해, 치유재단』이라는 것을 조작하는 매국행위를 감행하였다.

일본당국이 이번 기회에 뉴거리 자금지출 등을 통해 저들의 몸서리치는 반인륜적 죄악을 역사의 후막속에 영영 묻어버리고 기어이 재침야욕을 실현해보려고 하는 것은 물론이다.

보잘것없는 돈을 내흔들며 성노예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는 일본의 행위는 그야말로 민족적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재단』 조작으로 성노예 피해자들의 가슴속에 『치유』는 고사하고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현 집권자의 굴욕적인 모습은 일본으로부터 몇 푼의 돈을 받고 매국적인

『한일협정』에 도장을 찍어준 『유신』 독재자의 비굴한 모습그대로이다.

현 집권자의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 놀음에는 미국의 사족밀에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가로막는 과거죄악 반성 문제를 어물쩍 해버리고 하루빨리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여 반공화국 대결책 동을 더욱 강화하려는 흥심이 깔려있다.

때문에 남조선 각계에서 『10억 원은 필요 없다.』, 『〈위안부 재단〉 설립을 반대한다.』, 『〈한일 합의〉를 폐기하라.』, 『일본 정부의 공식 배상, 사죄 촉구하라.』, 『친일 매국의 국치』 등 분노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위안부 지원 재단』 설립을 두고 남조선 언론들도 1995년 일본민간단체가 만들었다가 피해자들의 반발로 2007년 해산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과 비교해보아도 규모나 성격, 사

명 등에 있어서 매우 협소하고 보잘것없는 『줄작』으로, 『일본에 머리 숙인 탓에 아이보다 배꼽이 더 커진 꼴』이라고 비평하고 있다.

일본의 10억 원은 성노예 범죄 피해자 1인당 4 277만 원으로서 남조선 『정부』의 『일시 특별 지원금』 4 300만 원보다도 작으며 『재단』 운영비로 남조선 『정부』는 년간 4억 ~ 5억 원을 부담한다고 한다.

반면에 남조선 당국의 굴욕적인 『재단』 설립 놀음에 더욱 오만방자해진 범죄국인 일본은 『배상금이 아니다.』, 『미래 지향적이다.』, 『남조선이 소녀상 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는다.』, 『10억 원을 준채 끌나는 것이 아닌가.』 등의 파렴치한 발언들을 내뱉으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과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천인공노할 과거죄악을 무마시키려는 현 남조선 집권자야말로 특등사대 매국노이며 민족의 재앙거리로서 하루빨리 들어내야 한다.

한덕수

속담에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있는데 해외를 싸다니며 동족을 헐뜯어내는 남조선 보수집권 세력이 꼭 그러하다.

얼마전 말따와 이딸리아를 행각한 외교부 장관 윤병세가 『북의 시대착오적이고 골물적인 협정 도발』이니 뛰니 하면서 『유엔 안보리 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행정』에 대해 또다시 협약했다. 또 미국에 날아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해군참모총장도 『고위급 전략협의』니, 미국방부 부장관과 회담이니 하는 것들을 벌려놓고 반공화국제재와 군사적 압박 강화를 구걸하였다.

수치도 모르는 열간망둥이들의 추태라 해야 하겠다.

예로부터 집안싸움은 밖에 나가 외우지 않는다고 했다. 하물며 함께 손잡고 통일에 나아가야 할 동

족에 대해서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런데도 외세의 침략과 전쟁으로부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위협』이라고 하면서 악착하기 그지없는 반공

## 자멸의 신호탄

얼마전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은 북의 『화려도 밤』과 『기습침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활동을 가로막아나침으로써 현석회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것도 모자라 남조선 당국이 이번에 호전 세력을 내몰아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진은 화약대를 풍기며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 소동에 광분한 것은 그들이 야말로 이 땅에서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전쟁과 분열만을 추구하는 민족반역 무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호전 세력들이 전쟁 소동을 벌려놓은 연평도와 백령도 지역은 군사적 충돌 위험이 극도에 달한 서해의 열점수역이라는 것이다.

지난 시기 남조선 호전 세력들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유령 선인 『북방 한계선』이라는 것을 고집하며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의 무장 도발을 감행하였다.

얼마전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현석회의 북측 준비 위원회의 제의에 호응하여 해외의 각계 충동포들이 참가한 준비 위원회들이 결성된 것은 겨레의 자주 통일념원과 의지가 얼마나 강렬하고 뜨거운지를 그대로 실증해

을 불어대고 있으니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윤병신』이 분명하다.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해군 참모총장의 미국 행각도 마찬가지이다.

『(한) 미 고위급 전략 협의』 직후 『국가안보

중히 여기고 평화를 사랑하는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결단과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조선 호전 패들이 다른 지역도 아닌 서해 열점수역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 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린 것은 제2의 연평도 사건을 기어이 불러오겠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전쟁 연습 소동으로 이 지역 정세를 더욱 긴장시켜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고 나아가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탈아보겠다는 것이 남조선 호전 패들의 흥심이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고의적인 도발로서 그야말로 화약더미 위에서 불망치를 휘두르는 매우 위험천만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시기 퇴폐를 맞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교훈을 찾을 대신 언제 불과 불이 오갈지 모르는 정세가 가장 첨예한 서해 열점수역에서 전쟁 소동에 광분하는 남조선 호전 패들의 죄악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리화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도발은 자멸의 신호탄이다. 남조선 호전 세력들이 외세를 등에 업고 감히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 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본사기자 서명수



최근 남조선 보수당은 『북의 테로, 랍치 가능성』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면서 사회에 공포와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보수당은 『련합 뉴스』, 『조선 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을 내세워 『최근 중국과 동남아지역에서 북의 테로, 랍치 정후가 포착』 되었거나, 『10여 개의 테로 실행 조작』 되었다는 『〈세상의 평화〉』,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에 따른 보복 차원』이라느니 뛰니 하는 모략이나 발을 련속 불어대게 하고 있다.

한편 남조선의 외교부와 주변 나라 주재 총령 사관들은 기자회견이나, 『안전 간담회』니 하는 것들을 벌려놓고 『관광객들도 북의 파괴성이 될 위험이 있다.』고 떠들면서 그 누구의 『태로 가능성』을 여론화 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집권자까지 나서서 국제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프랑스에서의 대규모 대로 사전을 거들며 『북의 태로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를 개울리하면 안된다.』고 쳐쳐댔다.

역적 패당은 그 누구의 『태로 가능성』을 떠들면서 사회에 공포와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다 못해

나중에는 『북의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 하였다느니, 『엄중한 도발』이니, 『중단』이니 뛰니 하며 『싸이버 테로』 설까지 퍼뜨리고 있다.

최악의 통치 위기가 조성되고 사회 전반에서 반 『정부』 기운이 고조될 때마다 『북풍』 조작으로 출로를 찾으려는 것이 남조선 보수당국이 써온 상투적 수법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 남조선 집권 세력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도를 높여 『북풍』 조작에 매달리면서 남조선 전역에 『페로』 공포증과 불안을 조성시키고 있는 것은 그만큼 통치 위기가 국도에 달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지금 보수집권 세력은 위험 천만한 『싸드』 배치 결정과 일본과의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체결, 통치부내에서 련일 터져나오는 특대형 부정 부패 사건과 끝날 줄 모르는 계파싸움, 반인민적 악정과 동족 대결 망동으로 하여 인민들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 심각한 통치 위기에 허덕이고 있다. 집권자의 『지지률』은 이미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오래다.

내외 언론들은 일치하게 『박(정부)의 레임 덜리』, 『빨리도 시작되였다.』, 『벌써 끝이 보이고 있다.』, 『수습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하고 있다.

남조선의 민심 또한 폭발 직전에 놓여 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뒤집고 갈아엎자.』, 『친미 친일로 나라 망치고 대결로 통일 가로막고 독재로 국민 죽이는 『정부』 필요 없다.』, 『깨끗한

정치 약속하고 깨끗한 정치 배우는 박근혜 더러워서 싫다.』 ...

이것이 남조선 사회 전반에서 울려 나오는 웨침이다.

남조선 집권 세력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테로 사건들을 계기로 남조선에서 불안과 공포 분위기를 반공화국 적대의식을 고취하는데 악용하고 저들에게 향한 분노한 민심의 이목을 떤데로 돌려 최악의 통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불을 키질하는 격이 되고 있다.

역적 패당의 상투적인 『북풍』 조작책 동에 얼마나 신물을 느꼈던지 남조선 보수집권 세력 내부에서도 『상습적 안보장사가 도를 넘고 있다.』, 『비상』도 한번이다. 북풍은 더이상 성난 민심을 달랠 수는 구급약이 아니다.

『〈세상의 평화〉』에 계기로 남조선 보수집권 세력은 『북의 시대착오적이고 골물적인 협정 도발』이니 뛰니 하면서 『유엔 안보리 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행정』에 대해 또다시 협약했다. 또 미국에 날아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해군 참모총장도 『고위급 전략협의』니, 미국방부 부장관과 회담이니 하는 것들을 벌려놓고 반공화국제재와 군사적 압박 강화를 구걸하였다.

수치도 모르는 열간망둥이들의 추태라 해야 하겠다.

예로부터 집안싸움은 밖에 나가 외우지 않는다고 했다. 하물며 함께 손잡고 통일에 나아가야 할 동

족에 대해서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런데도 외세의 침략과 전쟁으로부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위협』이라고 하면서 악착하기 그지없는 반공

화국 『제재 결의』 조작에 앞장선 것도 모자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제재와 압박 강화를 구걸하고 있으니 수치이면 이보다 더 큰 민족적 수치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윤병세는 아세안 지역 연단 상회에서 반공화국 압박 공조에 매달리며 품수 없이 놀아대다가 외교적 수모를 당하는 희비극을 연출한 바 있다. 그랬으면 응당 정신을 차려야 하겠으나 얼굴에 개가 죽을 씨웠는지 또다시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제재나 압박이니 하는 나발

을 불어대고 있으니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윤병신』이 분명하다.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해군 참모총장은 미국 행각도 마찬가지이다.

『(한) 미 고위급 전략 협의』 직후 『국가안보

박근혜 자체가 망신스러운 줄도 모르고 국제 무대를 싸다니며 동족을 헐뜯고 반공화국 제재와 압박 강화에 매달리고 있으니 그 밑의 수하들 개들로 끝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오늘 국제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패당의 추태는 지금으로부터 천수 백년 전 동족의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였던 신라 통치자들의 사대주의 적이고 배족적인 행위를 련상케 하고 있다.

력사는 이런 자들에게 민족의 저주와 규탄, 치욕과 파멸 밖에 차례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두 번만 보여주지 않았다. 남조선 당국은 저들의 반민족적, 반통일 적 행위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멸 행위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긴 청와대 안주인인 본사기자 김철호

## 수치스러운 구걸 행각

『세누리당』 1차장은 『북에 들어가는 현금을 차단 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압박수단을 만들어내야겠다는 데 량국이 의견을 같아했다.』고 했고 해군 참모총장도 미국방부 부장관과 회담에서 『련합해 상방 위태세 및 공조체계 강화』를 논의했다고 떠들어댄 것만 봐도 이들의 미국 행각이 본질에 있어서 침략적인 외세의 힘을 빌어 공화국을 고립 압살해 보려는 구걸 행각, 때국 행각이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 준다.

남조선 당국은 저들의 반민족적, 반통일 적 행위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멸 행위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긴 청와대 안주인인 본사기자 김철호

## 물고뜯는 그 버릇 어디 가랴

지난 7월 14일 『세누리당』의 전 대표가 자기가 당권을 쥐었던 2년 전의 전당 대회 승리를 자축하는 모임에 1 500여 명을 참가 시켜놓고 비박계의 위력을 과시하자 친박계는 이를 맞서 7월 27일 『세누리당』 전 최고위원의 주관하에 『세누리당』 소속 의원 50여 명이 참가하여 대규모 먹자판을 벌려놓았다.

물론 이 자리들에서 서로마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난하는 발언들이 나온 것은 물론이다.

친박계와 비박계의 개싸움은 전당 대회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지는 『세누리당』의 계파싸움을 보통 사람으로서 으르렁대며 싸우는 TV토론회』라는 야유와 비난, 조소가 터져나왔다.

전당 대회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지는 『



마전해수욕장에서

요즘 청류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청류관에서 한여름의 무더위를 가셔주는 맥주와 막걸리, 빙수를 비롯한 시원한 음료들과 평양행면, 불고기, 전골, 강냉이 쌈 등 갖가지

들어졌는지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 파자조각들을 보면 만화영화생각이 나서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우

지난해 12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사랑조각과 파자조각을 만들어 봉사할 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모든 조건을 다 풀어주

재료선택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경험을 쌓게 되었고 오늘은 손님들이 즐겨 찾는 식품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파자조각이야말로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높은 결정체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후려워졌다.

본사기자 고영숙

리도 파자조각을 하나 집어들었다. 파자조각을 살펴보느라 이렇게 멋들고 청류관의 일꾼들과 료리사들은 여러 차례 파자조각품평회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 파자조각 만드는 방법과 여러 가지

손님들이 좋아하고 재료는 어떤 것을 써야 건강에 더 유익할지, 오래 두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청류관에서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주문봉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와 만난 청류관의 기사장은 청류관에

파자조각매대가 생겨나게 된 가슴뜨거운 사연

나오고 또 왔다오.》

『파자조각들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

나에 대해 들려주었다.



가슴을 천갈래만갈래로 찢어놓았다.

림하영은 명해 서있었다. 지난 시기 그 뜻을 다는 헤아리지 못한채 불렀던 어느 노래의 구절구절이 새겨지면서 가슴에 용어리로 맷혀왔다.

뻔히 보면서 잡을수가 없었던 손, 부딪치는 소리에서 비로소 우정도 사랑도 유리벽안에 놓여있

간히웠다. 자본주의 독소에 자주정신이 마비되어 굴욕을 속명으로 받아들이며 버려지만도 못한 삶에 쫓겨왔다. 인정의 갈

중에 허덕이며 망치 하나님 힘조차 없는 무愧한 존재들로 하나님 숨져가고 있는 것이다. 치열리는 무관심, 무능력, 무책임을 체질화한 악의 사회가 이 무고한 주검들을 딩고

리기의 유리벽이 몸도 마음도 같아버린 숨막히는 악의 세상에 태여난것이 정현이, 너의 『죄』였구나…

풀모르는 저주와 꾸성으로 가득한 진도는 그야말로 지옥중의 생지옥이다.

만장의 시선앞에서 애들을 끌까지 구조하겠노라 헛소리를 남긴 『대통령』은 종내 함홍차사가 돼버렸다. 끼니도 잠도 다 잊은 립하영에게 보여진 청와대일파의 행실은 어느것이나 다 추태였고 지독한 기만이였다.

쏴— 쳐질썩!

차거운 물갈기가 휘뿌려지는 부두가에서 립하영은 쓰디쓴 회억의 열물이 솟구치는것을 느꼈다.

화를 스스로 불러온것은 다름아닌 내가 아닌가. 어이없게도 나는 박근혜를 위해 『열광』의 노래를 불렀다. 수많은 유권자들을 불러일으켰지, 다른아니 박근혜지지에로. 그럼 나도 위선자?! 열마나 많은 사람들을 청맹파니로 만들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히우고. 이 세상은 온통 거짓과 철면피의 세상이더니. 속고 속히우는 사슬에 끝없이 얹히우는게 정녕 인간세상의 진면모란 말인가. 또

서 『부유하고 문명한 고도성장사회』를 운운하며 『현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다.

순진한 넋을 유린하는 치사한 위선이 협잡에 협잡을 냉고 눈썹 한번 까딱 않고 생명을 앗아가는 혐악한 세상, 모른척 하며 방임하고 누구도 깨끗이 주려 하지 않는 두터운

## 금강산의 4계절이 름

금강산은 천태만상의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다.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1만 2천 봉우리와 각양각색의 모양을 가진 기암들, 층암절벽들, 거대한 너럭바위, 절벽과 바위들을 깎으며 수많은 못과 소를 이루면서 감돌아 흐르는 옥계수, 무지개를 이루며 쏟아지는 무수한 폭포들.

특이한 땅생김과 웅장한 경치, 산악미, 계곡미, 겨울의 눈경치, 구름과 안개, 다양한 식물상, 강변경치, 호수경치, 바다경치까지 다 안고있는 금강산은 단순한 하니의 명승지가 아니라 자연의 온갖 명승의 요소들을 한곳에 모아놓은 명승의 집합체를 이루고 있다.

천하절경 금강산은 예

로부터 때와 장소, 보는 사람에 따라 천태만상으로 모습을 달리한다고 하여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왔다.

특히 계절에 따라 그 모습이 변하여 서로 다른 정취를 자아내기 때문에 꽃피는 봄철에는 『금강산』이라고 하였으며 룩음이 우거진 여름철에는 쑥이 무성하다는 뜻에서 『봉래산』이라고 불렀다. 가을철의 금강산의 이름은 『풍악산』인데 이것은 단풍으로 붉게 물든 1만 2천 봉우리의 풍경을 표현한것이며 겨울에는 나무잎이 다 떨어져 암석들만 남아보인다고 하여 『개풀산』이라고 하였다. 계절에 따른 이러한 이름은 17세기경부터 고착되어 되었으며 그때까지 불

리워지던 『선산』, 『상악』 등 여러가지 이름들은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금강산의 경치는 세계의 유품이여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각지의 명산들에 『해서(황해)금강』(장수산), 『함경금강』(칠보산), 『의주금강』(석승산)이라고 하였으며 세상 사람들은 금강산을 한번이라도 보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였다. 어느 한 나라의 화가는 금강산을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누구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고 하면서 『금강산의 경치는 상상외의것이므로 화가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해낼 수 없는 산수이다.』라고 경탄하였다.

허성철

## 삼복철의 보양음식 삼계탕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삼복철이 되면 여려가지 보양음식을 만들어먹는 군하였다.

햇닭의 배속에 찹쌀, 인삼, 대추, 마늘 등을 함께 넣고 끓여 만든 삼계탕은 단고기국과 함께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여름철보양음식의 하나이다.

처음에는 영계(병아리보다 조금 큰닭)를 백숙으로 고아 만든다고 하여 『영계백숙』이라고 부르다가 여기에 인삼을 넣으면서 계삼탕, 지금은 삼계탕이라고 이름이 바뀌여졌다고 한다.

가장 더운 삼복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기운이 빠지고 입맛이 떨어져 영양부족이 오기 쉽다.

또한 올라간 체온을 떨구기 위하여 피가 피부에로 모여들고 위장과 근육

에는 피가 부족하여 피순환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찹쌀 음식보다 따뜻한 음식을 먹어 위장과 간을 보호하여야 하는데 삼계탕이 좋다고 한다.

삼계탕은 닭고기와 인삼의 약리작용, 찹쌀, 밤, 대추 등의 성분들이 함께 어울려 영양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훌륭한 진강음식이다.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고기는 오래전부터 몸이 차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 닭고기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어 여름철 몸의 기를 보충하고 각종 면역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닭고기와 함께 삼계탕

에 들어가는 다양한 재료들의 효능에 대하여 『동의보감』에는 『삼계탕에 첨가되는 인삼은 심장기능을 강화하고 마늘은 장제역 할을 하며 밤과 대추는 위를 보호하면서 빈혈을 예방하고 호박씨는 기생충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 율무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몸안의 로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으며 은행은 폐를 보호하고 검은깨는 동맥경화를 예방해준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처럼 맛이 뛰어나고 여름철 건강에 특효인 삼계탕은 현재 우리는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 속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느 한 나라의 작가는 자기의 소설에 『삼계탕은 조선최고의 음식이다.』라고 썼다.

본사기자

다시 배신의 나락에 떨어질 줄은…

림하영,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 가정이란 가져본적도 없고 아이 하나 낳아본적도 없이 오로지 권력야망에만 충만되어 있는 너자아닌 독사가 떠벌이는 『가정행복』 타령을 끝이 듣나니. 마녀의 최면술에 말려들었던 탓에, 식인종을 구원의 천사로 오만한 탓에 내스스로 아들을 차디찬 몰인정의 바다속에 수장시켰다. …

『아— 정현아! 내가, 어리석은 이 엄마가 너를 죽이는구나.』

『국민행복』의 꿈을 이뤄낸것이 아니라 국민절망의 악몽을 이뤄낸 『대통령』 아닌 악통령,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거치장스럽다 내버려죽인 악녀, 저하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주점으로 산도 만들고 바다도 메울 회세의 살인마가 『대한민국』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과 위선, 기만과 배신으로 얼크러진 악몽의 란무장, 썩어가는 사회가 들썩워준 치욕에 치를 떨며 립하영은 자신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였다.

『이 땅에 선은 없다, 없어!』

## 새롭고 특색있는 파자조각들

봉사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얼마전 청류관을 찾은 우리는 훌안의 매대에서 곰, 병아리 등 갖가지 동물들과 사파, 포도를 비롯한 파일들을 형상하여 만든 파자조각들을 맛보며 좋아하는 손님들을 만나보았다.

『시원한 평양행면 생각이 나 청류관에 왔다가 동물을 형상한 파자조각들을 보고 너무 신통해서 손녀에게 하나 사주었는데 얼마나 좋아하겠나요. 그래서 오늘 손녀를 앞세우고 또 왔다오.』

『파자조각들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

나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청류관의 일꾼들과 료리사들은 여러 차례 파자조각품평회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 파자조각 만드는 방법과 여러 가지

손님들이 좋아하고 재료는 어떤 것을 써야 건강에 더 유익할지, 오래 두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청류관에서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주문봉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와 만난 청류관에

파자조각매대가 생겨나게 된 가슴뜨거운 사연

나오고 또 왔다오.》

『파자조각들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

나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청류관의 일꾼들과 료리사들은 여러 차례 파자조각품평회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 파자조각 만드는 방법과 여러 가지

손님들이 좋아하고 재료는 어떤 것을 써야 건강에 더 유익할지, 오래 두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청류관에서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주문봉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와 만난 청류관에

## 단편소설

### 불을 부르는 소리 (10)

글 오송심, 그림 김윤일

사정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구조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였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행위들이 립하영을 비롯한 실종자들이 앞에 연해 연방 펼쳐졌다. 『정부』

도 해운업체도 경찰도 한 통속이었다. 실신하여 쓰러지는 실종자가족들의

결에서 개걸스레 라면을 처먹고 사망자명단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장관나리들의 무도한 장관이 불는 불에 키질을 하였다. 애들 구조는 관심밖이었으나 그 가족들의

분노에 대해선 용케도 잊지 않고 주야감시로 살피며 깊어매려들었다. 웃물이 흐린데 아래물 맑을 소나. 『푸른 집의 너주인』이 참사와 무관한

로 파를 위로하는 명연기를 선보이니 뒤질세라 하수인들도 바찌물을 들손잡수부를 출연시켜 『적극적인 구조』라는 회비금을 엮었다. 추태에 추태가 꼬리를 물며 살을 지미는 상실의 아픔에 소금을 뿌려대고 억장이 무

나지는 통분함에 삿대질을 하였다. 바작바작 야이 오르고 애간장이 타들었어도 립하영의 마음속엔 금요일 만이 있었다. 오늘도 금요일, 배일도 금요일… 기다림의 금요일은 오고 가고 또 왔다.

박정한 이 땅에선 시간마저 이다지도 무정한 것인가.

첫날에는 살았을거라는 확신으로, 둘째날에는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셋째날에는 살았을가 하는 의혹으로, 넷째날에는 시신만이라도 온전할 때 찾았으면 하는 애달픈 소원으로 마음의 지행점을 한치한치 물려놓았다.

하루하루 마음이 변하는 것이 립하영은 몹시 두려웠다. 포기 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

싫었다. 왜 피해자가 마음을 접고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거냐고 항의도 해보았지만 관련자측의 어떤 위로도 고무도 없었다. 더욱기 립하영이네를

악에 받치게 한것은 참사현장을 활용하여 전광판에 제시한 한장의 사진이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모지를 쓰며 여린 팔로, 의자로 선장을 때리는 애들의 모습이 어찌나 선명하게 찍혔던지 처음엔 비명도 울리지 못하고 온 장내가 얼어붙었다.

『어제… 뭐야?』 누군가의 신음같은 한마디에 비로소 잠겼던 목이 열려 악악 고함이 터졌다.

『못된 놈! 구경거리가? 사진을 찍었지.』 『그럴거면 왜 창문부터 활깨 뜨려주지 못해?!』 『저걸 보구두… 인간백정들!』

『왜 저걸 보여줘? 무엇때문에? 우리 숨이 불어있는데 원쑤 같으냐?!』 『누구 망치 없어요? 얼른 좀 줘요. 애들을, 애들을 구할테야!』

가까이에서 사진찍을수는 있을망정 밀비등치는 애들을 위해 유리창을 깨뜨려주는 손은 없었다는 치절한 사실이 가족들의

가슴을 천갈래만갈래로 찢어놓았다.

립하영은 명해 서있었다. 지난 시기 그 뜻을 다는 헤아리지 못한채 불렀던 어느 노래의 구절구절이 새겨지면서 가슴에 용어리로 맷혀왔다.